

第4次 韓-日 學術討論會

(韓-日)國際課稅 制度의 概要와
實務的 對應에 對하여

日時：2008. 10. 14

場所：釜山地方稅務士會 會館

釜山地方稅務士會

近畿稅理士會

目 次

1. 會長人事

- I 釜山地方稅務士會 會長 / 3
- II 近畿稅理士會 會長 / 6

2. 主題發表文 - (日-韓) 國際課稅 制度의 概要와 實務的 對應에 대하여

- I (日本) - 國際課稅 制度의 歷史的 推移 및 現在의 思考方式 / 9
發表者：中島 浩，藤岡 美智子
- II (日本) - 國際課稅 制度의 概要 / 31
發表者：永岡 稔，青木 隆幸
- III (韓國) - 國際課稅 制度의 歷史的 推移 및 現在의 思考方式 / 77
發表者：柳 喜連
- IV (韓國) - 國際課稅 制度의 概要 / 87
發表者：柳 喜連

3. 具體的인 事例

- I (日本) - 事例 1 移轉價格稅制 (發表者：朴 龍一) / 119
事例 2 配當稅額控除 (發表者：吳 幸哲) / 191
- II (韓國) - 事例 1 移轉價格稅制 (發表者：柳 鍾民) / 217
事例 2 配當稅額控除 (發表者：方 碩振) / 293

4. 質疑應答

- I 韓國側에서 日本側에 質問 / 313
- II 日本側에서 韓國側에 質問 / 323

회장인사

近畿稅理士會 宮口正雄 會長님을 비롯한 任員 여러분을 釜山地方稅務士會에서 뵙게 되어 그 기쁜 마음을 말로서 다 表現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北京 올림픽競技 開會式을 裝飾했던 論語의 말씀 “有朋自遠訪來 不亦樂呼也”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다 건너 먼 異域에서 친한 벗이 찾아 왔으니 이 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날 世界는 民族과 國境을 超越하여 하나의 地球村 單位로 發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企業이 多方面으로 交流하며 서로의 發展을 圖謀하고 있습니다. 오늘 貴會와 當會가 國家間 經濟的 交流의 核心인 “國際租稅”를 테마로 第 4 回 學術討論會를 開催하게 된 것은 極히 時宜適切하고 有益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피건 데 貴國에 있어서 國際租稅問題는 우리나라에 比해 相當한 期間 앞 서 發生했으며 오랜 歲月 改正과 補完을 거쳐 現在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리라 期待하고 있습니다.

兩 會는 1991 年 友好親善合意書 調印 以後 해를 거듭하며 友好親善關係를 다져왔고 特히 그 동안 세 차례의 學術討論會를 통해 建設的이고 創造的인 交流關係로 發展시켜 왔습니다. 이번 第 4 會 討論會가 兩 會의 親善交流는 勿論이고 나아가 韓日兩國 間의 未來指向的인 關係定立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亞細亞에는 韓日 兩國에만 있는 所重한 稅務士制度가 內外로부터 심한 挑戰에 直面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相好 情報와 資料를 交換하고 經驗을 共有하며 制度를 維持發展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討論會 準備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兩國의 關係者 여러분들께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近畿稅理士會 여러분 저희들의 準備가 不足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반기는 저희들의 眞實한 마음을 받아 주시어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에서의 이틀 間의 日程이 좋은 追憶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2008 年 10 月 14 日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金 成謙

회장인사

안녕하십니까? 긴끼세리사회의 미야구치 사다오회장 입니다.

오늘, 김성겸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과, 이곳 부산에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합니다. 또한, 오늘의 제 4 회 학술토론회 개최에 있어서는, 사전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의견교환이 가능하게 된 점을, 진정 감사 드립니다.

귀 세무사회와 우리 긴끼세리사회는, 1991 년에 우호친선합의서에 조인한 이래, 교류를 거듭하여 왔습니다만, 2005 년도부터 보다 충실한 친선관계를 다지기 위하여 상호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4 회째가 됩니다.

제 1 회째의 토론회에서는, 귀국의 전자신고 제도에 대하여, 앞서나간 상황을 배울 수가 있었고, 현재 당 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2 회째는, 우리나라의 회사법에서 신설되었던 회계참여제도에 대하여 설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 3 회째는, 오사카에 오셔서, 양국의 자격제도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고, 양국의 세무·회계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매우 유익한 토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4 회째인 이번에는, 양 회의 사전협약에 따라, 「양국의 국제조세에 대하여」라는 테마가 선정되었습니다만, 기업활동의 국제화는 매년 확대되고 있고, 인접국인 양국 그리고 양회는, 서로 배우고,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에서는 한정된 시간입니다만, 양국의 국제과세 제도의 역사적 추이와 현상에 입각하고, 더욱이 실무적 관점에서 구체적 사례와 함께 이해를 깊게 함으로서, 양국간의 국제교류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진정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귀 회의 힘찬 발전과 김성겸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융성을 진정으로 기원 드리며, 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년 10 월 14 일

긴끼세리사회 회장 미야구치 사다오